

화성시
도서관 소식지

풍경

제47호

두근두근
나눔 화성
화성시 문화재단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공공도서관

태안도서관 · 삼곡도서관 · 병점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송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송림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노을빛도서관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편집위원 서은화, 김보라, 강소연, 최지연, 오세원, 박치영, 최보영,
이호성, 서영지, 최예슬, 송민정, 김민지, 유정미, 유은선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화성시문화재단

편집 도서관기획홍보팀, 도서출판인쇄마을 & J.Design

발행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책, 사람, 마을을 품는

화성시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속도

- 08 화성시 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이모저모
- 12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
〈당신의 화성을 기록합니다.〉
- 14 함께 읽고, 같이 쓰는
〈제7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도서관의 온도

- 18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태원준 작가
- 22 사서, 요즘 취미
문구가 취미이자 특기
- 24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 아이에게 선물하는 첫 번째 책 BOOKSTART,
2021년 화성시도서관 〈북스타트〉
 - 화성시 도서관, 책으로 말을 걸다.
〈주간 북레터〉
 - 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 나를 위로하는
〈퇴근길 인문학 산책〉
 - 8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이야기
〈메이크 북스, 독립출판 1기〉

도서관의 시선

- 34 **사서특화칼럼**
다시 사랑받고 있는 LP 시장

- 38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 42 **화성여지도**
화성 속 언택트 드라이브

- 44 **사서의 북컬렉션**
- 그림을 읽고 싶은 날
 - 호쾌한 나를 위해
 - 인생이 너무 쓸 때, 설탕 한 스푼
 - 풍요(豊饒)

도서관의 뉴스

- 50 • 노을빛 도서관 재개관
- 서연이음터도서관 임시개관
 - 화성시 도서관 전자자료
 -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홍보영상
 - 남양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독자참여 및 안내

- 52 가로세로 낱말퀴즈
음악편

- 53 독자 후기 코너

- 54 도서관 이용안내

CONTENTS



08 화성시 도서관 9월,〈독서의 달〉 이모저모

12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
〈당신의 화성을 기록합니다.〉

14 함께 읽고, 같이 쓰는
〈제7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도서관의 속도

2021 화성시 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이모저모

가을을 '신량등화(新凉燈火)'의 계절이라 한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처음 생길 무렵 등불 밑에 앉아 글 읽기가 좋다는 의미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9월 '독서의 달'은 2017년에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 19가 일상이 된 요즘, 화성시 도서관에서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과 함께 읽고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자세히 들여다 보기

작가와의 만남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최근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품위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강연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된다. 남양도서관에는 약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브런치를 운영 중인 양재우 작가를 초대했다. 차칸양으로 더 알려진 양재우 작가는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해 화성시민과 이야기 나눈다.

구분	운영도서관	행사명	운영일시
작가 강연	남양도서관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차칸양(양재우) 작가	9.25.(토)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유성호 작가	9.25.(토)
	봉담도서관	『동화넘어 인문학』 조정현 작가	9.18.(토)
	비봉작은도서관	『빨강이들』 조혜란 작가	9.26.(일)

공연 프로그램

화성시 도서관과 함께하는 9월의 주말은 신나는 공연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스토리텔링 형식의 마술 공연인 <매직쿠키>는 베스트셀러 그림책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을 마술과 접목시킨 작품으로 동지나라어린이도서관에서 상연된다. 비봉작은도서관의 <과학 마술 콘서트>는 마술 공연과 함께 과학의 원리를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샘내 작은도서관의 <그림책 힐링 콘서트>, 송산도서관의 <너는 소리>, 중앙이음터 도서관의 <클래식 동화공연>은 동화구연과 함께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힐링 공연이다.

구분	주관	행사명	일시
공연	삼괴도서관	빛과 모래로 들려주는 샌드아트	9.26.(토)
	샘내작은도서관	그림책 힐링 콘서트	9.24.(금)
	송산도서관	<너는 소리> 공연	9.25.(토)
	왕배푸른숲도서관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9.29.(수)

도서관의 속도

체험 프로그램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나만의 e-book 만들기 행사를 운영한다.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뜻하는 '오토머튼(automaton)'의 복수형으로 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뜻하는 '오토마타' 프로그램이 송린이음터도서관에서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실시간 강의를 통해 운영되는 <오토마타 목공체험>은 나무를 주 재료로 과학의 원리와 예술적인 상상력이 결합되어 화성시민의 이목을 끈다.

'9월 독서의 달'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을 추천한다.

구분	주관	행사명	일시
체험	남양도서관	지구를 살려주세요	9.18.(수)~9.19.(목)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한복 방향제 만들기	9.11.(토)
		송편 비누 만들기	9.11.(토)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9.23.(목)~9.29.(수)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팝업북 만들기	9.18.(토)
		업사이클링 정크북	9.25.(토)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북아트	9.11.(토)
	샘내작은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북아트	9.25.(토)
		쪽빛염색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9.25.(토)
	송린이음터도서관	독서링 목공체험	9. 4.(토)
		오토마타 목공체험	9. 4.(토)
	왕배푸른숲도서관	인터랙티브미디어체험	9. 1.(수)~9.10.(금)
		그림책 e-book 만들기	9. 8.(수)~9. 9.(목)
	진안도서관	우리가족 천연비누 만들기	9. 1.(수)~선착순 마감



기타 행사

송산도서관에서는 9월 한 달간 <인기도서 전집, 전질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동 시리즈로는 『흔한 남매』와 『안 흔한 일기』 총 11권과, 『주리 천재 엉덩이 탐정』10권 등이다. 일반 시리즈물로는 웹툰 『유미의 세포들』13권과 『쌍갑포차』 총 14권 등이 대출을 기다리고 있다. 목동이음터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이용자가 추천하는 도서를 모으는 <이 책 나랑 같이 읽을래?>가 진행된다. <청소년 한 책 읽기> 행사도 진행해 다양한 연령층의 프로그램 참여를 염두했다.

구분	주관	행사명	일시
기타 행사	동탄북합문화센터 도서관	블라인드북	9.14.(화)~9.24.(금)
		독서엽서	9.14.(화)~9.24.(금)
		집콕 책놀이 키트	9. 8.(수)~9.17.(금)
	목동이음터 도서관	이 책 나랑 같이 읽을래?	9. 1.(수)~선착순 마감
		청소년 한 책 읽기	9. 1.(수)~선착순 마감
		일일특강,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가이드	9.15.(수)
	봉담도서관	천연비누 KIT증정	9. 1.(수)~9.30.(목)
		스마일 비닐 비치백 KIT증정	9. 1.(수)~9.30.(목)
		내가 사랑한 문장들	9. 1.(수)~9.30.(목)
	비봉작은도서관	북면가왕 콘테스트	9.11.(토)
	삼괴도서관	다문화선생님과 떠나는 세계여행	9월 4, 11, 25일(토)
	송산도서관	인기도서 전질대출	9. 1.(수)~9.30.(목)
	왕배푸른숲도서관	도서 원작 영화 『마션』 상영	9. 3.(금)

장마가 걷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화성시 도서관에서 준비한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 한 부분으로 도서관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서관에서는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QR 코드를 통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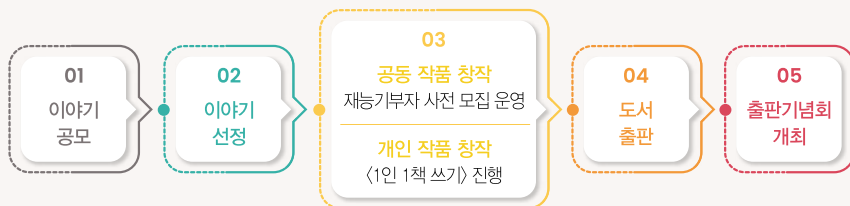
2021년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 당신의 화성을 기록합니다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은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화성시민의 삶과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모으고자 기획되었다.

작품의 소재를 찾고, 이야기를 짓는 모든 과정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2021년 마을 옛이야기 창작프로그램 운영과정



이야기를 모으다

6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책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를 공모했다.

공모 주제는 '화성시와 연계된 개인의 일상과 경험을 담은 글'로 화성시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 화성시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등을 수집했다. 이야기는 총 30편이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통해 공동 창작 작품 2점과 개인 창작 작품 24점이 최종 선정되었다.

구분	성명	작품제목
공동	김동훈	선창포구 이야기
	박창규	우정면 화수리 3.1독립 운동 기념비 제막 역사
	강지혜	희망의 씨앗
	곽민준	새로운 고향, 경기도 화성시 동탄
개인	김명숙	골프 농부, 루디아 경기도 화성시민으로 꿈을 노래하다
	김무웅	나의 사랑, 화성(華城) : 마을 아카이브로 시민과 함께 마을 교육공동체를 꿈꾸다.
	김송연	화성의 여행 화성당성을 아시나요?
	김수지	경기도 화성시 도서관 탐방기
	김장훈	세렌디피티 (뜻밖의 기쁨)
	김주희	화성인
	김혜주	음악의 영향력
	김홍택	나만의 힐링 전당. 선남 숲공원과 치도천을 거닐며
	박영숙	인생에 지지 않기 위해 나를 마주하는 용기

구분	성명	작품제목
개인	백종숙	일상 그리고 그림
	이성신	나의 인생 2막은 화성으로부터
	이혜진	나의 도시 동탄 1차
	임훈혜	나의 아프락사스, 마도 올림터
	정희영	북(book) 친화적인 경기도 화성시에서 엄마가 된 건 행운이었어!
	차영선	늘 화, 요 일, 의 숲 (화성 요사이 일기) : 흔적을 따라 매향리
	최선희	버드나무 그늘 아래
	최원문	홍랑전(洪娘傳) : 홍각시 이야기
	최유원	경기도 화성시에 정착하다
	홍수지	나와 경기도 화성시 이야기
	홍윤경	살어리랏다, 화성에 살어리랏다
	홍호선	그 공원 옆 도서관
	황하나	경기도 화성시 개나리 마을이 동탄 신도시가 되기까지의 나의 삶

이야기를 만들다

8월부터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다. 공동 작품의 경우, ‘선창포구’와 ‘3.1독립운동 기념비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주제에 관심 있는 재능기부 봉사자의 글과 그림이 더해져 함께 작품을 창작한다. 하나의 주제에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완성할 작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선정된 24점의 개인 작품 창작자들은 〈1인 1책 쓰기〉 과정에 돌입했다.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 강좌를 수강하며 작품을 창작한다. 교육 과정은 출판사 『마음산책』의 대표이자 시인인 정은숙 작가가 맡았다. 그는 ‘어떤 원고가 책이 될까?’라는 주제 아래 작품을 창작하는 데 꼭 필요한 이론과 실재를 교육한다. 창작 과정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의 원고를 모아 출판 작업을 진행한다. 완성된 책들은 추후 화성시립도서관 18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화성시민 창작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담당 사서는 “개인, 지역공동체의 경험과 기억이 본 사업을 통해 재생·보존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늘도 화성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글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3·1독립운동
기념비(우정)

함께 읽고, 같이 쓰는

제7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화성시립도서관 '독서감상문 공모전'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독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작된 대표적인 독서 캠페인이다.



독서감상문 도서 선정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았다. 누구나 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는 책,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책, 다양한 독 후 활동 및 문화 행사로 활용이 가능한 책을 추천 기준으로 삼았다.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7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시민 도서선정단>을 모집했다. 독서활동에 관심 있는 화성시민 성인 1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 후,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서와 시민 도서선정단은 두 차례 공모전 도서 선정 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도서의 적합성을 판단, 부문별로 총 3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아동 부문



청소년 부문



일반 부문

아동 부문

긴긴밤 | 루리 지음, 문학동네어린이, 2021

청소년 부문

유원 | 백온유 지음, 창비, 2020

일반 부문

복자에게 | 김금희 지음, 문학동네, 2020



독서감상문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깊이 있는 독서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독서감상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7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글쓰기 수업>이 열렸다. 아동과 일반 강자로 구분하여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300명이 수강하였다. <작가와의 만남>은 아동 부문 선정도서 『긴긴밤』의 루리 작가와 청소년 부문 『유원』의 백온유 작가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강연 전, 작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 Q&A 코너를 운영하며 작가가 선정한 10명의 질문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관심을 끌었다.

독서감상문 공모 및 향후 계획

공모작 접수는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35일간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작품의 독창성, 논리적 분석력, 구성력 등을 기준으로 사서와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부문별로 대상(화성시장상)·최우수상·우수상(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도서관 온라인 전시관(www.ehslib.or.kr)에 전시되며, 우수작과 함께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10월 부문별 3명 총 9명의 입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글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18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22 사서, 요즘 취미

24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도서관의 온도

도서관의 온도

연재 코너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준 책

– 필립 들레름 〈첫 맥주 한 모금 그리고 다른 잔잔한 기쁨들〉

태원준(작가)



올해 초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을 한 편 봤다. <소울>은 지루한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조’의 이야기다. 조는 음악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종종 클럽에서 연주를 한다. 마침내 자신이 동경하던 최고의 밴드와 연주를 하게 된 날, 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되어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빨려든다.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낯선 세계에서 분투한 끝에 겨우 지구로 복귀한 조. 잠시 동안 삶에서 완전히 멀어졌던 그는 문득 깨닫는다. 그를 행복하게 한 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던 음악이 아니었다. 어깨로 떨어지던 낙엽, 방 안으로 쏟아지던 햇살, 길을 걸으며 먹던 피자 한 조각이었다. 지루하게만 여겼던 소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변지는 순간 조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다.

영화관을 나서며 문득 한 권의 책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쯤 대학생 누나의 책장에서 집어 들었던 ‘첫 맥주 한 모금 그리고 다른 잔잔한 기쁨들’(필립 들레름 지)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었다. 맥주 한 모금의 맛을 알 턱이 없는 시기가 책 제목에 호기심이 가기도 했고 무엇보다 책이 무척 얇은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 시절 고등학생의 삶은 꽤나 팍팍했기에 두꺼운 책을 읽을 여유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0교시를 위해 아침 7시에 등교하고 ‘야자’(야간자율학습)를 밤 10시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어찌면 ‘조’보다 더 챗바퀴 같은 삶이었다. 아니 확실히 그랬다. 책을 꺼낸 자리에서 첫 챕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 챕터의 소재목이 기억난다. ‘새벽 거리에서 먹는 크루아상’. 새벽에 일어나 빵을 사러 가기까지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삶의 환희로 묘사한 글은 단번에 나를 들레름의 일상으로 빨아들였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침대에서 눈을 뜬 뒤 집 안 곳곳을 오가며 나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장밋빛으로 물든 새벽의 찬 공기를 만끽한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마저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져 오히려 빵집이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 느껴진다. 버릇처럼 보도 가장자리를

도서관의 온도

따라 걷는 자유로운 한 걸음 한 걸음이 축재다. 모두가 ‘거의’ 잠든 시간에 빵집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한 아름 안아들 때의 기쁨. 다시 찬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맛보는 따스하고 말랑말랑한 크루아상의 맛. 그는 이제 갓 시작된 하루에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먹었다며 행복감에 취한다.

이 짧은 글을 한 편 읽은 뒤, 나 역시 단 5분 만에 행복해졌다. 누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냉큼 책을 가방에 넣어 학교에 가져갔다. 평소라면 책상에 고꾸라져 부족한 잠을 채웠을 쉬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었다. 프랑스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번 나의 미소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차역, 극장, 해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짧은 순간 낚아 올린 즐거움의 종류는 무궁무진했다. 약 30여 편의 작은 기쁨을 찬찬히 읽은 뒤 나는 자연스레 삶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에 동화되었다. 오로지 밤에 잠드는 시간만을 기다렸던 고등학생은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잔재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님들이 도로 위에서 서로에게 손을 흔드는 걸 확인하고 해죽해죽 웃었다. 책상 서랍에 문제집과 책을 꼭 맞게 배열하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 〈첫 맥주 한 모금 그리고 다른 잔잔한 기쁨들〉은 절판된 후 〈첫 맥주 한 모금〉이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정말 별것도 아니었지만 모두 나만 아는 것들이었다. 소소하다 못해 사소한 일상이 하나하나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여행작가란 삶을 살게 된 뒤에도 유효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고를 때의 순간적인 갈등, 기차 건너편 현지인이 읽는 책에 대한 호기심, 낯선 도시에 도착해 처음 코끝을 스치는 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려도 무방한 순간을 겹겹이 꿰어 여행의 즐거움을 조금씩 팡창시켰다. 여행 중간 중간 만나는 압도적인 볼거리가 감탄이었다면 그 틈을 촘촘하게 채우는 소박한 시간은 감동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고방식은 우연히 꺼내 들었던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비록 책은 얇고 각각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내게 전해준 메시지는 굵고 길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상도 잘게 썰어 나열하면 수많은 즐거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모두가 끝없이 찾아 나서는 행복이란 가치도 결국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샘솟아야 한다는 것을.

✈ 여행작가 태원준



태원준 작가 소개

여행이란 '편견은 무너지고 한계는 사라지는 것'이라 말한다. 엄마와 함께한 500일간의 세계일주 여행기를 묶어 3부작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를 출간했다. EBS 『클래스e』, 『세계테마기행』 등의 방송과 강연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다.

★ 봉담도서관에서 '우리가 떠나는 이유'를 주제로 10월 23일(토)에 태원준 작가와 만난다. 10월 한 달간 '여행'을 주제로 작가 강연과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니 많은 관심 바란다.

사서, 요즘 취미

문구가 취미이자 특기



국립현대미술관 문구

문구를 사랑하는 문구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오늘 사용할 연필이나 펜을 준비하고 그에 어울리는 노트나 메모지를 준비한다.

편리성을 생각하면 연필보다 볼펜이 좋다.

볼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잉크다. 수성·유성·중성 잉크, 필기감과 발색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수성이다. 그런데 물이나 커피를 쏟으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번지기도

한다. 유성 볼펜은 필기감과 발색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볼펜 똥이 쉽다. 중성 잉크는 수성과 유성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물에 번지지 않고 잉크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다. 축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잉크가 마르는 단점은 있다.

연필과 볼펜의 소리와 진동을 온전히 느끼려면 그에 어울리는 공책이 필요하다. 공책의 선택도 쉽지 않다.



〈문학과 미술이 만났을 때〉 문구

종이의 색과 질, 제본 방식(실, 제본-양장, 제본-스프링, 제본-바인더), 선의 종류(무선, 유선, 꺾선, 도트) 그리고 크기라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종이는 사용하는 섬유질의 종류, 펄프에 첨가하는 물질 등에 따라 종이의 종류와 차이가 결정된다. 필기구를 생각한다면 종이의 질에 집중해야 하고 관리와 보관을 원한다면 바인더 양식이나 양장 제본이 좋다.

다양한 문구를 애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술관 문구를 좋아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념품점에서는 자체 제작한 디자인 문구류를 판매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영문명인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가 새겨진 수첩과 연필, 지우개 등 실용성과 편의성까지 겸비한 문구를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문구는 군더더기 없이 산뜻한 로고와 선명한 색감이 더해져 문구인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지난봄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문학과 미술이 만났을 때〉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와 연계된 문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만년필, 공책 그리고 전시 책자가 쥐어져있었다. 노트 커버와 만년필 케이스는 전시 포스터를 담아 디자인하였고 공책은 레코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속지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박태원 작가의 연재소설과 삽화가 담겼다.

미술관 문구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세련된 자체 제작 상품과 함께 그날의 전시를 기념한 문화상품으로 문구인의 취향을 저격한다. 작가와 컬래버레이션 한 제품들도 이목을 끈다. 작가의 작품이 내가 쓰는 문구에 담겨 일상에서 미술과 함께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글 | 최보영(봉담도서관 사서)

2021년 화성시 도서관 북스타트

아이에게 선물하는 첫 번째 책 BOOKSTART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를 슬로건으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독서를 장려한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대화를 통해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스타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는 2018년 3월부터 도서관을 통해 지역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독서생활을 지원한다. 연령에 맞게 선정된 2권의 그림책과 가이드북이 든 책꾸러미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지난 5월부터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1단계(0~18개월)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은 화성시 도서관 홈페이지 내 북스타트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도서관별로 북스타트 데이를 지정하여 후속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독서지도 특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책놀이 프로그램, 구연동화 등이 진행된다.

7월 정남도서관에서는 〈그림책 힐링 육아〉를 주제로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의 저자 이지현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열린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소개와 함께 엄마를 다독이는 내용으로 참여자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8월에는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감발달 책놀이〉 프로그램이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은빛독서나눔이 수업



왕배푸른숲도서관 부모교육 수업



토끼 그라토
송선옥 지음, 2020, 한림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감기 걸린 물고기』와 『안녕, 나마스테』를 함께 읽고 미술 놀이와 신체 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8월 4일에는 2021년 북스타트 3단계 선정도서 『토끼 그라토』의 송선옥 작가가 목동이음터도서관을 찾아 미취학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독후 활동을 진행했다.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8월 18일 선정도서 『나무가 자라는 빌딩』의 윤강미 작가와의 만남으로 북스타트 데이를 꾸렸다.



나무가 자라는 빌딩
윤강미 지음, 2019, 창비

9월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는 <부쩍부쩍 크는 아이를 위한 책놀이 육아법>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0월 7일부터 21일 까지 매주 목요일에는 아동을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은 9월 16일 4~5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책놀이 2단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0월 21일에는 3단계 6~7세 아동을 위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과 11월에는 삼곡도서관에서 독서지도 특강과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화성시 통합예약 시스템 (<https://reserve.hscity.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글 | 최예슬(정남도서관 사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화성시 도서관, 책으로 말을 걸다.

주간 북레터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에서 2020년 <주간 북레터>를 시작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참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기획되었다.

2021년 <주간 북레터>는 매월 1·3주에는 도서출판 마음산책의 대표이자 『스무 해의 폴짝』, 『책 사용법』의 정은숙 작가가 추천하는 일반 도서 2권과 2·4주에는 『아홉 살 독서 수업』, 『아이를 읽는다는 것』의 한미화 작가가 소개하는 아동 도서 2권으로 구성된다. 매주 주제 소개와 함께 추천 도서의 줄거리, 눈여겨볼 점 등을 담아 이메일로 구독자들에게 전달한다.

2021년 <주간 북레터>는 ‘민주주의 꽃, 선거’를 주제로 문을 열었다. 매년 반장선거를 하며 ‘선거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아동을 위해 한미화 독서전문가는 학생회장에 출마하며 겪게 되는 정민이의 이야기를 담은 주애령 작가의 『승리의 비밀』과 덜컥 뱉어버린 말에 선거를 나가게 된 떡집 석뽕이의 『기호3번 안석뽕』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선거가 무엇인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오랜 세월 투쟁해 얻어낸 결과이며
개인의 권리를 한 표로 행사하는 일이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선거에 임할 때는
‘사자처럼’ 눈을 부릅떠야 한다.

4월 글 한미화(칼럼니스트, 작가)

얼어붙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회복할까 싶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이 들어맞는 요즘, 정은숙 독서전문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정리한 강상중 작가의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와 독일과 일본의 문화를 담은 오가와 이토 작가의 『양식당 오가와』를 <주간 북레터> 도서로 선정했다.

일상의 잔잔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반성’과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주위에 무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우는 듯했다.



7월 글 정은숙(작가)

양질의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북레터는 <화성시 온라인 전시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 <주간 북레터>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으니 독서전문가의 추천 도서가 궁금한 구독자들은 서둘러 방문해보기 바란다.



💬 담당자 한마디

매해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추천도서, 신간도서, 인기도서를 소개하는 정보매체는 많습니다. 주간북레터는 단순히 도서 소개에 그치기보다는 독서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매주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주제와 관련해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추천합니다. 책 선택이 고민이 된다면, 주간북레터에 소개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구독자 한마디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 정보는 찾기 쉬운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책,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지금 읽으면 좋은 책을 스스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주간 북레터를 구독하니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의 도서도 알게 되고 줄거리와 주목할 점을 알려줘서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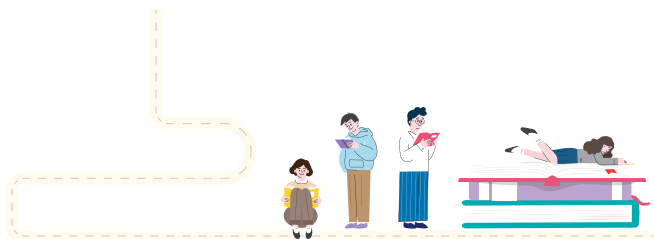
글 | 강소연(도서관기획홍보팀 사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 나를 위로하는

퇴근길 인문학 산책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퇴근길 인문학 산책>을 테마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였다. 도서관은 <퇴근길 인문학 산책>을 통해 화성시민의 인문학적 배움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다. 강연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성인 수강생을 고려해 오후 7시에 진행되었다.

강연은 총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경기대학교 최항석 교수가 '미래 시민을 위한 배움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6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 강연하였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시선에서 '배움'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최항석 교수는, 미래는 단순히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며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4일에는 박준 시인의 강연 ‘읽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이 열렸다. 시인의 베스트셀러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패러디한 제목으로, 우리 곁에서 빛을 내고 있는 일상들이 어떻게 시와 문학으로 변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박준 시인은 독서를 싫어했지만 일기를 소설처럼 쓰며 글쓰기에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시에 대한 영감을 일상생활 속 대화에서 찾는다는 그는, 시민들과 함께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가 얼마나 닮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강연을 통해 함께 추적하고자 했다.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발신자황미영수신자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발신자김영일수신자모두에게:

오늘 강연 들길 잘했어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김현자수신자모두에게:

좋은 강의 편하고 쉽게 학습 기회 감사합니다

내가 모두에게: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꼭 뵙고 싶습니다.

마지막 강연자는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의 윤홍균 작가이다.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사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월 26일 화성시민과 만났다. 작가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과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낮을 필요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연 후, 시민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 주었다. 고민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잘 하고 있다’는 격려는 참여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은 <퇴근길 인문학 산책> 강연을 통해 개개인의 인문학적 성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랐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깊이 있는 인문학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8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이야기 메이크 박스, 독립출판 1기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메이크 박스 정규 프로그램 <독립출판 1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독립출판 1기>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차시로 진행되었다. 『아홉플러스』출판사 대표이자 『나의 포근했던 아현동』의 저자 박지현 작가는 6주간 화성시민과 호흡하며 콘텐츠 구상과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내지 구성 등 1인 출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이론 수업과 병행해 원고 첨삭도 이뤄졌다. 내용뿐 아니라 작업 진행 등 폭넓은 피드백으로 수강생의 최종 원고 작성과 실물 도서 제작까지 도왔다.

<독립출판 1기>를 통해 총 8권의 독립출판물이 발간되었다.

『간혀 있던 39』의 조희 작가, 『어쨌든, 정혜』의 안정혜 작가, 『잘 가고 있나요』의 우경미 작가 그리고 『지니의 세계』의 지니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독립출판물을 발간했다.

조희 작가는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 음압 병동과 생활 치료센터에서의 39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지니 작가는 자발적 퇴사 후 <독립출판 1기>를 통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감정을 희로애락으로 나눠 사진과 함께 수필로 담았다.

『Finding Me ABC』와 『내가 엄마를 만나면』, 『엄마의 개소리』, 『주하와 린하의 하루』 총 4권의 출판물에는 보호자와 자녀의 이야기가 담겼다.



〈독립출판 1기〉 출판 도서



〈독립출판 1기〉 운영 사진

『Finding Me ABC』는 알파벳을 활용해 진짜 ‘나’를 찾는 엄마 도혜진 작가와 딸 도우진 작가의 그림이 조화를 이룬다. 『주하와 린하의 하루』의 이윤희 작가는 카메라로 담기지 않는 아이와의 추억을 글로 눌러썼다. 직접 그린 표지의 김주하, 김린아 작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숫자영 작가는 『엄마의 개소리』에서 책 제목을 짓게 된 아이와의 사연과 함께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참소리를 담았다. 『내가 엄마를 만나면』에는 아이의 엄마가 된 김선아 작가가 엄마에게 건네는 따뜻한 글과 사진이 담겼다.

작가이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게 되니 꿈만 같다.”,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선택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출판 소감을 전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전시를 거쳐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은 시민의 일상 속 창작 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계획, 운영 중이다. 화성시 도서관을 통해 더 많은 화성 시민의 이야기가 재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글 | 오세원(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사서)



34 사서특화칼럼

38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42 화성여지도

44 사서의 북컬렉션

도서관의 시선

· 다시 사랑받고 있는 LP 시장 ·

LP 레코드의 탁 트인 소리는

창문 밖으로 뿜는 바람과 시원한 계절이 한눈에 들어오고

창문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주부의 거실과 같다. ...

포근한 햇살이 감싸 안은 풍성한 여유로운 공간.

- 괴성환, 『레코드의 비밀』 中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P는 음악 애호가들과 그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LP를 제작하는 가수들이 점점 늘고 있고, 심지어 LP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10대 팬덤을 가진 아이돌들도 LP를 발매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 온라인 음반 판매 업체의 LP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6% 성장했다고 한다. LP 재생기기인 턴테이블 매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이 도처에 널린 요즘 LP 시장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아날로그 감성

사실 LP를 듣기까지의 수고로움은 만만치 않다. LP 양면의 소릿골¹⁾은 예민하고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잡고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 조심스럽게 꺼낸 LP 판을 턴테이블에 놓고 톤암²⁾을 살짝 올려놓으면 음악이 재생된다. 30분쯤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LP 한 면의 재생이 끝난다. 그러면 다시 턴테이블로 가서 LP 판을 뒤집어줘야 뒷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 매우 아날로그적인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LP 판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신기함, 특유의 따뜻한 음질 소리, 판에 먼지가 켜를 때 나는 지지직 소리의 옛날 감성. 음원사이트에서 터치 한 번이면 들을 수 있는 편리함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감상하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보기에도 좋은 턴테이블, 그리고 LP

개인적으로 LP에 대한 관심이 스멀스멀 생겼을 때가 있었다. 인테리어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턴테이블 옆, 수집한 LP를 한 칸에 가지런히 꽂아놓은 걸 보며 우리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동안 가졌다. LP 자체의 디자인도 구매 이유다. 보통의 검은색 LP 판이 아닌 다양한 색의 컬러 LP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인기다. CD 앨범보다 큰 LP 앨범은 좋아하는 가수의 이미지가 크게 인쇄돼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턴테이블이 없는데도 ‘미개봉’으로 LP를 소장하는 팬들의 구매후기가 눈에 띈다.

1) LP 판에 회오리 모양으로 패인 가느다란 골. 이 골을 따라 바늘이 진동하고 음악 신호를 만들어낸다.
2) 턴테이블의 부품 중 하나로, 소릿골을 읽는 바늘이 달린 팔

LP 시장에 스며든 리셀 문화

LP 발매는 주로 한정판으로, 선 예약 수량 또는 정해진 수량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LP 제작 공정이 까다로우며 몇 개월이나 소요되기도 하고 주로 해외 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LP 공장은 한 군데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미 발매된 LP를 재발매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 때문에 LP가 품질될 경우 중고 가격은 몇 배로 뛴다. 극단적인 예로 가수 아이유가 2014년 발매한 『꽃갈피』 LP는 3만 5천 원에서 현재 미개봉 중고가가 100~2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요즘 말하는 '리셀 문화'로, LP를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지만 단순히 되팔기 위해 LP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리셀이 늘어날수록 실 수요자들이 LP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LP에 관심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LP 사운드를 체험하고 싶을 것이다. LP 전문점이나 LP 카페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화성시 목동아음터도서관에서도 가능하다. 목동아음터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뮤직스테이'에 다양한 LP와 CD 음반, 악보들을 소장하고 있다. 감상할 수 있는 턴테이블과 CD 플레이어를 비치해 원하는 음반을 골라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하일 경우 감상이 가능하니, 아래 추천도서로 먼저 LP를 접한 후 목동아음터도서관 뮤직스테이에 서 청음해보길 바란다.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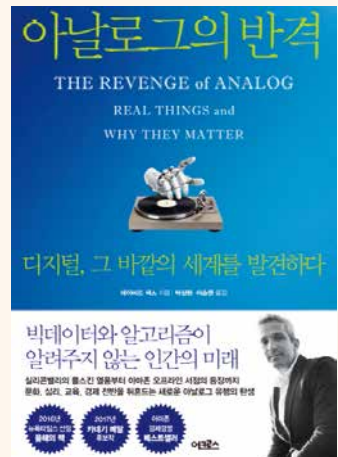
라이선스LP 연대기
윤준호 지음, 2021, 서해문집
“록 장르별 라이선스 LP를 총망라한
백과사전과도 같은 책”



판판판
김광현 지음, 2019, 책방삼
“재즈 잡지 편집장이 들려주는
인생 명반 이야기”



포트레이트 인 재즈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2013, 문학사상
“LP 애호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추천하는
재즈 아티스트와 LP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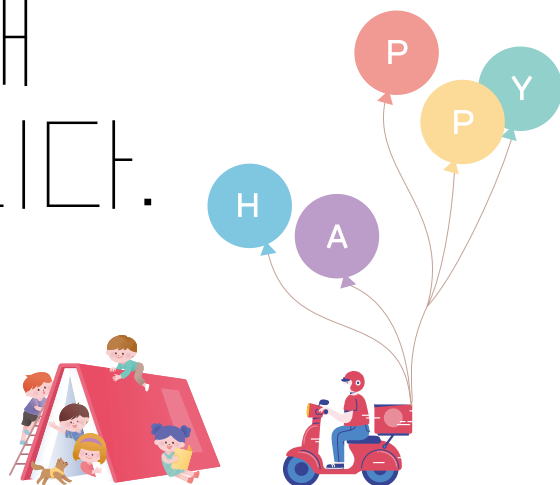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비드 섹스 지음, 2017, 어크로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날로그 회귀 현상”

글 | 김민지(왕배푸른숲도서관 사서)

2021 찾아가는 도서관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서관을 찾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었다. 화성시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폭넓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아웃리치³⁾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취약 계층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과 기관을 찾는다.

3)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꿈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프로그램, 도서관 밖에서 만나요!

도서관은 사전적 의미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보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보고·듣고·배우는 복합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서들은 도서관 변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이용자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 중이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요양 시설, 장애 이동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중고등학교를 찾아 시민과 만난다.

6월 진안도서관은 우리꿈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수업을 열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독서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도서관의 시선



동탄고등학교 <패드 드로잉> 프로그램



경기 케어센터



7월 동탄북함문화센터도서관은 동탄고등학교를 찾아 <패드 드로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예술 전공 진로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제공하여 도서관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작업한 이미지로 실물 굿즈를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9월 삼괴도서관에서는 장안 노인보건센터, 장안 장애인 재활센터, 경기 케어센터, 성혜원을 찾아 <행복배달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서와 기관 담당자의 협업으로 미술 키트와 치매예방 활동 키트를 제작했다. 여가활동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개인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기관 대출, 책 배달 나갑니다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에 책을 대출한다.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은 센터와 책 이용 수요가 많은 기관을 찾아 특성에 맞는 책을 제공한다. 병점도서관에서는 아시아 다문화 센터를 찾아 다국어 도서와 국내 도서를 제공했다. 정남도서관에서는 매월 성녀 루이제의 집을 찾아 큰 글자책과 함께 어르신들의 희망도서를 배달한다. 희망지역아동센터와 정남초등학교에는 교과연계도서와 진로, 흥미를 고려한 도서를 선정해 아동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고 건강한 독서생활습관을 갖도록 지원한다.

앞으로의 찾아가는 도서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외부 활동이 최소화되었다. 화성시 도서관은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관내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식 정보 대표기관 및 주민의 복합문화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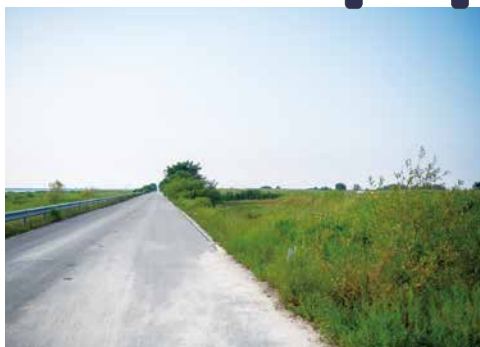
글 | 이호성(삼괴도서관 사서)

화성여지도(연재)

화성 속 언택트 드라이브 코스

: 사서의 시선으로, 화성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나만의 공간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을 느끼며 잠시나마 갑갑함을 털어낸다. 서해바다와 닿은 화성에서 언택트 드라이브를 즐기며 힐링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쌓이길 바란다.



어섬 가는 길 : 화성마산초등학교 ~ 어섬비행장(4.9km)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의 어섬. 시화 간척 사업으로 화성시의 많은 섬들이 육지가 됐다. 어섬 또한 과거에는 해안선 길이 1.9km의 물고기가 많은 작은 섬이었다. 마산초등학교에서 322번 지방도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초원이 된 어섬이 우리를 맞이한다.

어섬은 갈대와 비슷하게 생긴 띠풀과 1차선 도로의 연속이다. 사연을 품고 있을 법한 숲과 벌판을 보고 있으면 다른 행성에 와있는 것처럼 생경하고 독특한 느낌이 든다.

어섬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중간중간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정차해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띠풀 벌판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사진, 정찬송 작가 제공

네이버 블로그 <우아한 인생> <https://blog.naver.com/goodjcs>



화성방조제 : 공평항 ~ 매항리 선착장(13.23km)

화성방조제는 화옹지구 간척 사업을 통해 건립되었다. 한 쪽 끝은 우정읍 매항리이고, 다른 쪽 끝은 서신면 공평리로 이어진다. 이 10km 구간은 건물 하나 없는 4차선 일직선 도로다. 일몰을 감상하며 쪽 뽕은 도로를 달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 화성호 바깥쪽에 펼쳐진 갯벌과 바다 그리고 화성호 안쪽의 화성 습지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평일에는 방조제 주차장이나 쉼터 주변에 쉽게 주차도 가능하다. 자동차 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인도도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경치를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띈다.



바다를 끼고 화성방조제 도로를 달려왔다면 시간을 더 내 매항리 선착장까지 가보자. 매항리 선착장은 2005년 공군 사격장이 폐쇄되고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항구로 거듭나고 있다. 서해의 낙조는 공평항을 첫 손에 꼽지만 평일의 매항리 선착장은 붐비지 않고 한적해 공평항과는 다른 고요한 낙조를 볼 수 있다. 주차 공간,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넓고 깔끔해 차박 등 주말 캠핑 장소로도 인기가 많은 곳이니 참고해두자.

글 | 박치영(진안도서관 사서)

사서의 북컬렉션 1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그림을 읽고 싶은 날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함께 읽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책, ‘어떻게 읽어야 하지?’ 당황스러우면서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책, 온전히 그림에만 집중하고 싶은 날, 함께 읽을 ‘글 없는 그림책’을 소개한다. 독자만의 ‘읽음’을 위해 표지 위주로 소개를 담는다.

노란 연꽃과 연잎 그리고 눈과 코를 가진 사람 얼굴 형태의 무언가가 김병남 작가의 『바람 부는 밤에』 표지를 장식한다. 컴컴한 배경에 이마에 놓인 노란 연꽃이 대비를 이뤄 시각적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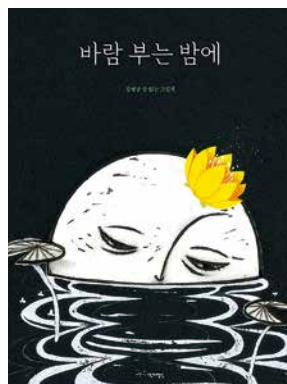
프랑스 작가 클로틸드 페랭의 그림책 가운데 놓인 빨간 상자는 표지의 인물들뿐 아니라 독자의

이목도 함께 주목하게 한다.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며 경쾌함을 주는 인물들의 모습도 눈여겨 볼만하다.

안느 마르고 램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의 『안을 보면 밖을 보면』의 표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수족관에 와있는 듯하다. 볼록 튀어나온 유리속으로 떼 지어 움직이는 붉은 물고기와 커다란 파란 물고기의 모습이 보인다. 좌우 대칭된 표지는 독자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글 없는 그림책’은 독자에 따라 읽은 내용이 서로 다른 재미가 있다. 다 읽었다면 옆 사람에게 책을 건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소개 | 유정미(남양도서관 사서)



바람 부는 밤에



안을 보면 밖을 보면



빨간 소포

사서의 북컬렉션 2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호쾌한 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소심하다’의 뜻을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로 정의하고 있다. 세심함에 반하기도 하지만 대담하고 호쾌하다는 평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점이기도 하다. 호쾌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음의 책을 권한다.

「말한다는 것」의 연구동 작가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진 오늘, ‘말’이 가진 힘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소통의 구체적인 기술도 담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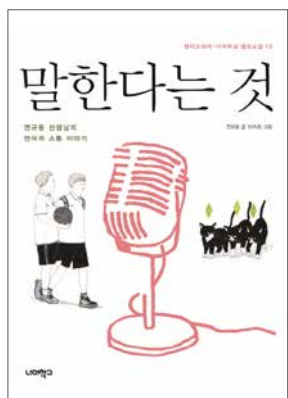
화성시 도서관의 제6회 독서감상문 공모전 도서이기도 했던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비밀글입

니다」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로 상처받던 주인공이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쓰여있다.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의 작가 자넷 윈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노력하는 그레타의 모습을 담았다. 대담하게 밀고 나가는 그레타의 모습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자는 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소개 | 유은선(다원이음터도서관 사서)



말한다는 것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사서의 북컬렉션 3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인생이 너무 쓸 때, 설탕 한 스푼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다.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이다. 말씀만 믿고 기다려 보지만,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인지 여전히 내 인생은 쓰디쓴 고(苦)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 문득 우울해질 때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3권을 담았다.

〈곰돌이 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출간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푸의 메시지와 삽화를 담아 독자에게 포근한 위로를 전한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는 우울증 치료용 애플리케이션 '마성의 토닥토닥' 개발자 허지원 작가의 저서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이유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과 함께 심리적학적으로 입증한다.

『그림이 있어 괜찮은 하루』는 독서 에세이 『월요일의 문장들』, 『책장의 위로로』 공감을 받았던 조안나 작가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주제들로 지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문득 인생이 쓰게 느껴질 때, 꺼내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내 삶의 감(甘)은 한 스푼의 설탕처럼 내 곁에 있는 게 아닐까. 책을 읽는 시간이 달달하게 느껴지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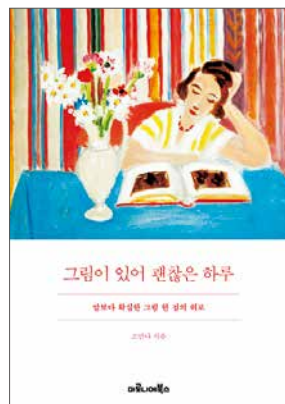
소개 | 유은선(다원이음터도서관 사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그림이 있어 괜찮은 하루

사서의 북컬렉션 4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풍요(豊饒)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거나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저 우리가 한 행동들이 모여 지구의 변화를 가져왔다.

『랩걸』로 큰 사랑을 받은 호프 자런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에서 어린 시절과 달라진 지구를 이야기한다. 무감각하게 자연을 소비하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일’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호프 자런은 다정다감한 문제로 새로운 실험을 제안한다.

산드라 크라우트 바술은 ‘플라스틱 없이 살기!’를 실천하며 겪었던 고민과 갈등을 담아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를 발간했다. ‘행복’을 기반으로 둔 작가의 실천은 독자로 하여금

‘나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호기심과 강한 용기를 갖게 한다.

〈인류세〉는 인류라는 한 생물종이 지구 환경 전체를 바꾼 시대를 의미한다. EBS 다큐프라임 제작진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구 환경의 변화를 다큐멘터리와 〈인류세: 인간의 시대〉에 눌러 담았다.

인류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풍요’가 동식물의 개체 수를 줄이고 지구를 더 뜨겁게 한다면 그 풍요의 끝은 곧 다가올 미래다. 함께 의식하고 함께 읽는 행위로 ‘지구와 함께하는 풍요’의 시작이 열리길 기대해본다.

소개 | 강소연(도서관기획홍보팀 사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인류세: 인간의 시대



50 노을빛 도서관 정식 개관

서연이음터도서관 임시 개관

화성시 도서관 전자자료

51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홍보영상

남양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도서관의 뉴스

노을빛도서관 정식 개관, 서연이음터도서관 임시 개관 안내

새봄초등학교 2층에 자리잡고 있는 노을빛도서관이 2021. 7. 26.(월)~8. 20.(금) 임시 개관을 마치고 9. 7.(화) 정식 개관한다. 노을빛도서관은 9시 30분부터 개관하며 평일은 22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 휴관한다.

서연이음터도서관은 8. 23.(월) 임시 개관하였다.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두 곳 모두 방역 시간은 13시~14시로 해당 시간에는 도서관 이용이 불가하다.



화성시 도서관 전자자료

화성시 도서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의 외출 활동 감소를 반영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전자잡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전자자료는 화성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9월에는 권여선 작가의 『아직 멀었다는 말』, 정세랑 작가의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등의 전자책과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장원정 작가의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등의 오디오북 신간이 구비되었다. DBpia를 통해 학술콘텐츠와 216종의 전자잡지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자료 이용 방법은 뒤쪽의 '도서관 이용안내'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홍보영상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화성시민의 안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온라인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시행한다.



‘변화하는 시대, 도서관 역할의 다각화’를 주제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한다. 1분 30초가량의 영상에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의 모습이 담겼다. ‘즐거움과 특별함, 공감, 문화’를 키워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과 직원의 모습이 어우러졌다. 영상은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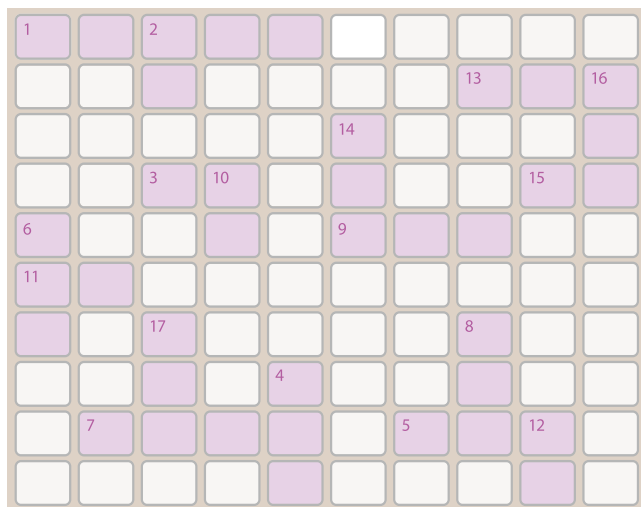
남양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남양도서관에서는 〈화성시 3.1운동사〉를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참여해 향토자료 80여권을 디지털화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코리안 메모리’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공동체 지식자원의 기록과 보존, 활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진행된 남양도서관의 향토자료 디지털화는 현재 13개 항목이 게시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협약 PC가 설치된 관내 11곳 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 음악편



가로

- 1 1977년에 시작한 대학생들을 위한 가요경연대회로 '배철수, 신해철, 심수봉' 등을 발굴한 프로그램
- 3 ○○은 DJ와 래퍼, 비보이 그리고 그래피티로 구성되어 에미넴, 제이 지 등이 대표 뮤지션인 음악
- 5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수상자이자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
- 7 9월 앨범 <ALIVE>를 발매한 차은우, 문빈, MJ, 진진, 라카, 윤산하가 속한 남자 그룹
- 9 소리나 영상 등을 기록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필름, 카세트 ○○○
- 11 기악의 반대로 목소리에 의해 연주되는 음악
- 13 자라의 핏에 용공으로 간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의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하나
- 15 전통 관악기 중 가장 크며, 굵고 긴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로로 부는 악기

세로

- 2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가야리·해금 등의 관현악 반주에 노랫말은 시조를 쓰는 음악
- 4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강약의 박자를 넣고 독특한 꺾기 창법을 구사하는 가요 장르
- 6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 8 <조조합인>, <그랬나봐>를 작곡한 작곡가이자 뮤직 토크쇼 ○○○의 스케치북 진행자
- 10 여러 대의 악기가 함께 행하는 연주 형태
- 12 두 음이 가지는 높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
- 14 '걸어가듯이', '적당히 느리게'를 일컫는 아다지오와 알레그레토의 중간 빠르기
- 16 오동나무 통에 명주실로 된 열두 줄을 매어 손가락으로 뜯는 전통 악기
- 17 남성의 가장 낮은 음역이나 그 음역의 성악가를 지칭하는 용어

독자 후기 코너

도서관 소식지 제47호, 풍경 즐겁게 보셨나요?

『풍경』은 2006년부터 발행된 화성시도서관 소식지입니다. 매년 4회 발행되는 계간지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더 풍성한 『풍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는 총 10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오른쪽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은				쥬				
	등 ₁₂	롱	국 ₅		술	쥬	▽	이 ₇	
		회			크 ₄		이 ₀		
		능 ₈					해 ₁₁		로
							토	리 ₁₁	
		표	이 ₀	이 ₆		호			호 ₉
문	하 ₅₁			리		로 ₀₁	로 ₅		
이 ₀				로 ₁₁					
하 ₉₁	온	하 ₅₁					눈		
					이 ₀	정	하 ₂	하 ₁	

도서관 이용안내

㉔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주 말
방역시간(도서관 내 체류불가)		13:00 ~ 14:00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 전자정보실	09:00 ~ 18:00	
		열람실	09:00 ~ 22:00
공공어린이도서관 (동지나래 / 두빛나래)	자료실 / 전자자료실	09:00 ~ 18:00	09:00 ~ 18:00
공립작은도서관	샘내, 기아행복마루, 비봉	화 ~ 토 09:00 ~ 18:00	
	양감, 마도, 팔탄, 봉담커피앤북	월 ~ 금 09:00 ~ 18:00	

※ 왕배푸른숲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운영시간과 동일
(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하는 기준입니다.)

㉕ 휴관 안내

정기 휴관일	도서관 명
매주 월요일	동탄북한문화센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봉담도서관, 삼괴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태안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남양도서관, 다원이음터도서관(10개관)
매주 금요일	병점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노을빛도서관, 중앙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7개관)
매주 일요일, 월요일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작은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3개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양감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봉담커피앤북작은도서관(4개관)

정기 휴관 : 지정 요일, 법정공휴일 / 임시 휴관 :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하는 날
(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하는 기준입니다.)

㉖ 회원가입 안내

구 분	내 용
대상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 경기도 소재 직장, 학교의 재직자 및 재학생
구비서류	-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본,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재학생은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오프라인 회원증 발급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 구비서류 지참 하여 도서관 방문(자료실 안내데스크) → 본인확인 후 회원증 발급 - 온라인 회원증 발급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서재 > 나의 정보] 메뉴 접속 → [온라인 회원증 발급]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 온라인 회원증 발급

☺ 도서대출 안내

구 분	내 용
대출규정	• 1인 1관당 7권(통합 42권) 자료 대출 가능 • 대출기한 14일(1회 7일 연장가능 단, 예약도서 연장불가) ※ 대출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
연체규정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90일 이상 연체 시 6개월 대출 정지
도서분실	• 동일도서로 구입 후 반납 • 분실도서의 품질 및 절판 시 지정도서로 대체 변상

전자자료 이용 안내

전자자료

운영내용 PC,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 (e-book, 오디오북, 음악, 전자잡지)

이용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 PC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 전자도서관 어플
 설치 → 도서관 검색 및 설정 → 로그인
 후 전자책/오디오북 대출

학술논문원문(DBpia)서비스

운영내용 홈페이지를 통한 학술논문원문 무료 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학술논문원문 바로가기

국회 논문 열람

운영내용 도서관 내 지정된 PC에서 국회 논문 원문
 무료 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도서관 방문 → 지정 PC에서 논문 열람

기타 서비스 안내

희망도서 신청

운영내용 월 2회 이용자 자료 구입 및 신청자 우선
 대출 서비스

1인당 3권(권당 50,000원 이하)가능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내용 화성시 관내 소장도서를 신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방법 1인당 3권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화성시 도서관' 채널 검색 후 추가

인스타그램 @hwaseonglib

페이스북 @hwaseonglib1

블로그 blog.naver.com/hwaseonglib

유튜브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9 772714 057007

ISSN 2714-0571